

금감원, 고위험 상품 설계·판매 단계부터 차단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 발표…사후구제→사전예방 전환
원장 취임 후 첫 개편…총괄부서 신설·민생법죄 특사경 등**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무게 중심을 기준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차단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아 조직과 감독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흥공 H자수 ELS 사태, 파생결합상품(DLF)·해외부동산펀드 부실 등 반복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를 계기로, 기존 소비자보호 체계가 피해 발

결합증권의 상품 구조 요건도 한층 엄격 해진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 이해 수준을 고려한 핵심설명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디크페팅' 판행도 차단한다. 판매 직원의 상품별 사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 된다.

사후 관리 역시 달라진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상품은 판매 제한이나 기초서류 변경 권고가 가능해지고, 필요할 경우 소급 적용도 허용된다. 고난도 ELS 상품에는 손실 가능성 도달 이전에 경고문자를 발송하는 '조기경보 알림제'도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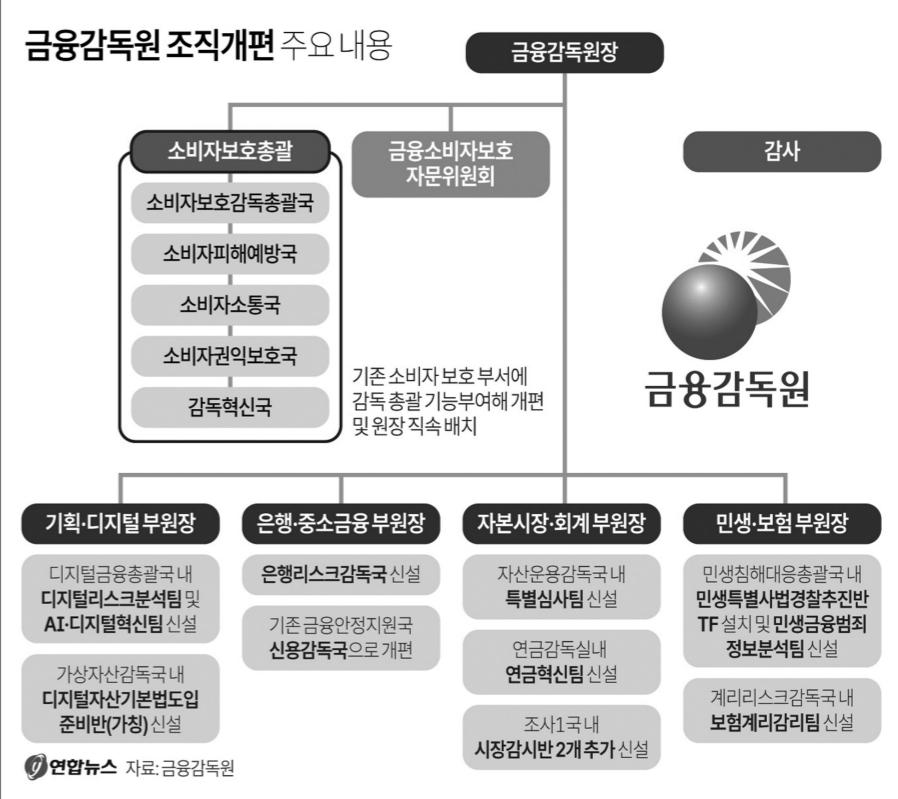
금융비용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제고, 예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고지의무 폐지, 유료 부가상품 안내 강화 등 불합리한 관행도 속절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IT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천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민원·분쟁조정은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이승중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산업은행 - 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전남도·산업은행,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정책금융 연계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 유치 본격화
'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산업 전환 모델 시동

전남도가 한국산업은행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중소도시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환 모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핵심으로 한 국정 기조에 맞춰, 전국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남과 정책금융을 선도하는 산업은행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과 금융을 결합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AI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최적화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투자도 잇따라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확정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조성, 첨단전략산업 벤처체인 구축과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전남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협업 방안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

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특징이다.

전남은 최근 해상풍력 1단지가 준공돼 상업운전에 돌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최적화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투자도 잇따라 확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투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 첨단전략산업 집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중소도시 혁신거점을 조성해 균형발전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에너지가 산업을 이끄는 전남형 성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주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경영' 우수기관 포상

지방은행 유일…포용금융센터 월스톱 상담 성과
전문컨설턴트 채용·저신용자 특별대출 지원 집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장'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 기관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금융감독원 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은행 고재덕 부행장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수상에는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지원

하는 '월스톱 금융종합상담'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 제공, 다양한 경영 컨설팅 제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질 개선과 저신용자 전용 포용금융 특별대출 지원에 집중해 어려운 경제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오른다

국토부, 내년 표준품셈 등 공고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사항과 근로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1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작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